

8

그림을 읽어요

◆ 그림의 장면을 보고 느낌을 써 봅시다.



어떤 장면을 나타낸 것인지 생각하며 그림을 살펴봅시다.



타작

가을철 벼의 낱알을 떨어내는 타작의 모습을 정겹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에요. 그림 왼쪽 위를 보면 한 명이 지게에 벧단을 실어 나르고 있어요. 그렇게 가져온 벧단의 이삭을 네 명의 일꾼이 열심히 떨어내고 있어요.

일꾼들은 벧단을 높이 쳐들었다가 개상[●]에 힘껏 내리치면서 낱알을 떨어내지요. 한쪽에서는 떨어진 낱알을 빗자루로 쓸어 모으고 있군요. 고된 일이지만 이들의 표정은 즐겁기만 해요. 한결같이 밝은 표정이지요. 수확하는 기쁨을 얼굴에 드러낸 것입니다.

등장인물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? 지게에 벧단을 싣고 오는 사람은 표정이 밝아요. 아주 잘 생겼지요. 벧단을 묶고 있는 두 사람은 표정이 매우 밝아요. 그런데 그 앞에서 등을 보이는 사람은 놀랍게도 버선을 신었네요. 벼 이삭의 까끌거리는 느낌을 없애려고 버선을 신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림의 맨 왼쪽 아래, 비질하는 사람이 있지요. 이 그림 속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이에요. 일하는 것을 다소 힘겨워하는 것 같이 보이지요? 이 그림의 특징은 타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표정과 분위기를 매우 사실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에요.

이번에는 그림의 오른쪽 위를 살펴볼까요? 그곳에는 갓을 쓴 사람이 자리를 깔아 놓고 앉아 타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. 그런데 그 모습이 거드름을 피우는 것같이 보이네요. 갓을 빼돌리지게 쓴 채 벧단을 베개 삼아 팔베개를 하고 비스듬히 누워 있어요.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에 올려놓고 입에는 긴 담뱃대를 물고 있고요. 자리 옆에는 술병도 하나 놓여 있네요. 농부들이 일을 잘하는지



감시하는 것 같아요.

그런데도 일꾼들의 표정은 기분 나쁘지 않아요. 그저 즐겁고 명랑하지요. 참 넉넉한 가을 풍경이에요. 농부들의 생명력 넘치는 일상을 따뜻한 눈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어요.

● 개상: 곡식의 낱알을 떨어내는 데 쓰이는 옛날 농기구

1 「타작」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.

1 어떤 장면을 나타낸 그림인가요?

2 고된 일을 하는 농부들의 표정이 밝은 까닭은 무엇인가요?

3 이 그림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했나요?

2 인물이 하는 일과 표정을 써 봅시다.



• 하는 일: _____

• 표정: _____

3 사진에 알맞은 낱말을 글에서 찾아 써 봅시다.



4 그림 속 인물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써 봅시다.



5 그림 「타작」의 느낌을 써 봅시다.

6 그림 「서당」을 보고 어떤 장면인지, 어떤 느낌이 드는지 써 봅시다.





배움 다지기

● 그림을 보고 각 장면에서 떠올린 느낌을 썼나요?

